

홍진경 "전남편 좋은 친구...전 시어머니와 통화 후 눈물"

등록 2026.05.18 09:46:26



[서울=뉴시스] 홍진경. (사진 = MBC '소라와 진경' 캡처) 2026.05.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모델 겸 방송인 홍진경이 이혼 이후 전남편과 친구처럼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방송된 MBC TV 예능프로그램 '소라와 진경'에서는 이소라와 홍진경이 파리에 도착해 오디션에 임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이소라와 홍진경은 파리의 식당에서 식사를 즐기며 이야기를 나눴다.

홍진경은 이소라가 전 남편에 대해 언급하자 "진짜 좋은 사람이다. 지금은 완전 좋은 친구"라며 "인간 대 인간으로, 되게 좋은 친구"라고 말했다.

이어 홍진경은 "헤어지고 나서도 우리가 자주 갔던 단골 냉면집이 있다. 거기 라엘이 데리고 셋이 가서 밥 먹는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데 일하는 분들이 되게 당황한다"고 했다.

홍진경은 전 시어머니와의 일화도 공개했다.

그는 "작년 추석에 집에 혼자 있는데 현타가 온 거다. 진짜 끝났구나 이런 생각에 어머님한테 안부 전화를 했는데 눈물이 너무 나더라. 너무 오열했다. 처음으로"라고 털어냈다.

이를 들은 이소라는 "세상에는 너무 다양한 형태의 관계가 있으니까. 얘기 들으니까 좋다"고 응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